



중년여성이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심 인 옥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Expectations of Middle aged Women for a life of Happiness to the Spouse

Sim, In Ok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analyze the expectations of middle-aged woman to their spouse. **Methods:** A sample of 39 middle-aged women was recruited from the workplace, religious organization and acquaintanc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nts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Q methodology. **Results:** There were four different types of expectations of middle-aged women. First type was “Collaborative and self-development type,” meaning that women developed self and were collaborated with their family or spouses. The second type was “Maintain their own life” meaning that women recognized and maintained their expertise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ir spouses. The third one was “Respect for the inner value” meaning that women gave continued respect and understanding their inner value. The last one was “Realistic acceptance” meaning that women kept the current situation without implementing new self-development type. **Conclusion:** There is a subjective structure within the types of expectations of middle-aged women for a life of happiness to the spouse.

Key Words: Middle aged women, Spouse, Happiness, Expect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경제수준의 상승 및 지식 정보화 시대를 통해 개인의 생활환경과 교육수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 영역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고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주려는 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중년여성들에게도 새롭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사회적 위치 상승 및 경제적 창출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의 여성들은 자기 개발 및 자아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결과에서도 50세 이상이 2014년 이후 10명중 5명으로 이러한 변화는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의 평균 수명도 84.1세로 이전의 수명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와 같은 추세는 여성의 전체 인구 중 중년기·노년기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구체적 대안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중년기는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

주요어: 중년, 여성, 배우자, 행복, 기대

Corresponding author: Sim, In Ok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988, Fax: +82-2-824-7961, E-mail: hiraly@cau.ac.kr

Received: Feb 28, 2015 / **Revised:** May 11, 2015 / **Accepted:** Jun 13,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세~60세의 기간을 의미하며[2],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이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 자신의 은퇴, 자녀의 결혼[3,4]과 같은 특수한 사건들이 도래되는 시기이다[5]. 특히 중년의 시기는 전 인생의 발달과정에서 20여년 이상의 긴 과정이므로 건강문제와 행복한 삶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생활환경과 행동양상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곧 추후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가족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저하, 심혈관계, 내분비계, 비노기계 및 근골격계 등에서 다양한 변화와 함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며 만성적인 장기치료를 요하게 된다[6]. 심리적인 문제로는 젊음에 대한 자신의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과 무력감, 여성상의 손상, 생식기능의 상실로 인한 우울,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가족 구성에서도 결혼 혹은 자녀 독립 시에는 외로움과 절망감을 경험 할 수 있다[7].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관계의 지속은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은 다른 생활주기와는 질적으로 복잡한 변화의 시기를 직면하게 되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에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발달 과업이 존재한다. 이에 중년여성이 다양한 변화에 잘 대처하고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중년 및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가족형태의 지지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관련성과 함께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문제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 부위기와 갈등 대처를 위한 상담 및 자조모임 경험에 대한 연구, 부부와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2,8,9]등의 연구가 있다. 이에 배우자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중년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와 해결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중년여성이 배우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때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것을 체험하였고[9], 이는 자아를 찾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되어, 행복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9]. 또한 노후과정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은 역시 배우자가 평균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0], 결혼만족도에서도 부부간의 애정관계 유지, 원활한 의사소통과 배우자의 긍정적 지지는 행복한 삶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13].

이와 같이 중년여성은 배우자와 긍정적 관계일 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중년의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14]. 반대로 중년여성이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상실감이 있거나,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배우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기대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 특히 배우자 스스로 중년여성이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 더욱 심화된 문제가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인식유형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중년여성의 심층적인 인식유형을 설명하고 이해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삶을 위해 중년여성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주관적 인식구조를 유형화 한다.
- 행복한 삶을 위해 중년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 행동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과 인식 및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주관적 태도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Q 방법[15]을 활용한 연구이다. Q 방법은 인간의 주관적 관점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연구이며 가설에 대한 검증보다는 가설

을 발견 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며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닌 피험자의 언어로 스스로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방법 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부분이다 [16]. 특히 Q 방법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태도와 지각, 인간의 느낌, 관점이나 사고 및 개인의 신념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주관적 속성을 외부로부터의 설명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형식으로, 응답자 스스로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피험자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연구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였다[16].

2. 연구대상(P 표본)

본 연구에서 P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개인 간의 차이보다는 Q 표본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 각각의 중요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16], 소 표본의 이론에 따르게 되었다. 이에 P 표본을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령 45~64세인 중년여성, 종교, 교육,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의 표출된 표본으로, 연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대상자로 최종 39명을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Q 표본)

본 연구를 위해 Q 표본 설정과정은 중년여성의 행복한 삶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내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1차적 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년여성 18명을 대상으로 비구조적 질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공통적 내용을 수집하였다. 중년여성의 비구조적 질문 시 각 한 명에 대해 심층면담 시간은 20~30분도 소요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문항의 내용을 기초로 배우자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행동요소를 선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추출된 표본에 대해 Q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과 간호학 교수들이 협의하여 문항별로 설명력이 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해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을 담고 있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최종 37개의 Q 진술문 표본을 확정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Q 분류 과정은 2014년 3월 10일~5월 20일 까지 완성하였고, 연구자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P 표본인 응답자에게 37개의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3개(+4), 가장 비동의 하는 진술문 3개(-4)까지의 연속성상에 일정한 숫자대로 배분하는 강제분류 방식(Forced quasi-normal distribution)을 채택하여 분류하였다. 응답과정에서 Q 강제분류를 마치고 가장 긍정하는 것으로 응답한 진술문 3개와 가장 비동의 하는 진술문 3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본 의미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였다(Figure 1).

5. 자료분석

P 표본으로 표집 된 중년여성 39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과정은 Q 분류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의 해당 번호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Q표본 3개에 해당하는 문항을 “-4”에 분류하여 각각의 항목에 1점, -3 (2점), -2 (3점), -1 (4점), 0 (5점), 1 (6점), 2 (7점), 3 (8점), 가장 긍정하는 문항 “+4”점은 9점으로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Figure 1 참조). 그리고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여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 인자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관련 유형을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1. Q 유형의 형성

중년여성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유형에 있어 아이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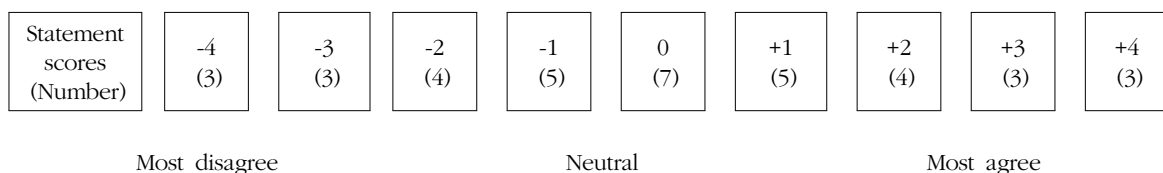


Figure 1. Q-sorting distribution.

값(eigen value) 1.00 이상의 기준으로 설명 변량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유형으로 4개의 인식유형(factor)이 발견되었다.

이들 요인들의 아이겐 값(eigen value)을 살펴보면 각 6.49, 4.13, 2.26 및 1.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형별 설명변량(variance)은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1유형은 16.65%, 제2유형은 10.61%, 제3유형은 5.81%, 제4유형은 4.89%이며 총 4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37.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명의 대상자 중 요인별 설명력이 가장 높은 제1유형에 속한 사람은 8명, 제2유형은 18명, 제3유형은 8명과 제4유형은 5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는 제1유형이 지배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각 유형별 상관관계는 제1유형과 제3유형이 0.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2유형과 제4유형이 0.34로 나타났다.

2. 유형별 특성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들이 기대하는 행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4개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제1유형은 ‘협조적 자기 관리형’, 제2유형은 ‘독자적 생활 유지형’, 제3유형은 ‘내면적 가치 존중형’ 그리고 제4유형은 ‘현실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일반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는 Table 1과 같다.

1) 제 1유형 협조적 자기관리형

제 1유형은 ‘협조적 자기 관리형’으로 중년여성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중년여성 자신이 외롭지 않도록 협조적으로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신뢰감이 생기도록 하는 배우자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제 1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총 8명으로 평균 연령은 55세이었으며 50%가 주부로서 가사 일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로 분포되었다. 대상자 8명 모두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은 대부분 중상위권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건강 유지를 위한 관리를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한다.’(#23, $z=1.70$)이며, 다음으로는 ‘항상 부부간의 대화와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의논한다.’(#36, $z=1.47$), ‘인생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함께 조절해

나간다.’(#18, $z=1.45$)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1유형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만들지 않는다’(#1, $z=-1.88$)이며 다음으로는 ‘현재 상황에 순응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한다’(#3, $z=-1.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한 부분에서는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떠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서로 의논하고 협조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원했다. 반면에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기 일에 몰두해야 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개인의 일을 창출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부정을 나타냈고, 현실에 걸맞게 행동하고 안주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Table 2).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20)를 나타낸 대상자(# 20)는 주부로서 전문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건강 유지를 위해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기대’를 선정한 이유를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을 앓게 될 때 여성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도래 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중년 이후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없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항상 부부간의 대화와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의논한다.’(# 36)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도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행동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진취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배우자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보여주었다.

2) 제2유형 독자적 생활 유지형

제2유형은 ‘독자적 생활 유지형’으로 본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각자의 독립된 영역을 인정해주며, 서로의 삶과 태도에 대해 구속하지 않고 상대방을 독립적으로 존중해주는 행동을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다. 독자적 생활 유지형은 모두 총

Table 1. General Features and Weight of Factors of the Target People by the Different Types (N=39)

Variables	Subject No.	Age	Job	Education level	Religion	Economic state	Factor weight
Type 1:	3	58	Housewife	College	Yes	Good	0.5813
Continuous self-development (n=8)	6	58	Housewife	University	Yes	Fair	0.4868
	8	56	Housewife	College	Yes	Good	0.4632
	20	54	Housewife	University	Yes	Good	1.2018
	22	56	Professor	MD	Yes	Fair	0.4510
	30	55	Officials	University	Yes	Good	0.7404
	37	59	Business	MD	Yes	Fair	0.7148
	38	47	Art Therapist	College	Yes	Good	0.7500
Type 2:	1	61	Professor	PhD	Yes	Good	0.6057
Respect to independent living (n=18)	11	46	Officials	College	Yes	Good	0.3838
	12	57	Business	MD	Yes	Good	0.5084
	13	64	Professor	PhD	Yes	Good	1.0122
	15	60	Housewife	MD	Yes	Good	0.6674
	16	55	Business	MD	Yes	Good	0.9503
	17	55	Business	MD	Yes	Fair	0.6734
	21	58	Professor	MD	Yes	Good	0.6774
	24	54	Professor	PhD	No	Good	1.2372
	25	64	Housewife	High school	Yes	Fair	0.6265
	26	60	Housewife	High school	Yes	Fair	0.5730
	27	64	Business	University	No	Good	0.3179
	28	57	Teacher	University	Yes	Good	0.0525
	29	53	Business	High school	Yes	Fair	0.3742
	31	45	Housewife	College	No	Good	0.6580
	33	50	Professor	PhD	No	Good	1.1528
	34	61	Dietitian	University	No	Good	0.3293
	36	63	Business	High school	Yes	Good	0.8335
Type 3:	5	54	Housewife	University	Yes	Good	0.8157
Recognize the value of personal (n=8)	7	60	Housewife	University	No	Poor	0.4259
	9	56	Nurse	University	No	Fair	1.6032
	14	45	lecturer	MD	Yes	Fair	0.9839
	19	55	Pastor	University	Yes	Fair	0.8960
	23	64	Business	MD	No	Good	0.5520
	32	64	Housewife	University	Yes	Fair	0.7989
	39	58	Business	MD	Yes	Good	0.7807
Type 4:	2	55	Housewife	College	No	Fair	0.5155
Realistic adaptation (n=5)	4	58	Sales manager	University	Yes	Poor	0.3755
	10	50	Professor	PhD	Yes	Good	0.8322
	18	57	Pharmacists	University	Yes	Good	0.4538
	35	61	Housewife	High school	Yes	Good	0.1855

MD=master degree.

Table 2. Descending array of Z-Scores for Factor 1

Item No.	Statement	Z-score
23	To maintain health and self-administration without dependence.	1.70
36	Tell me what he think and decide	1.47
18	Talk to each other about the life and work together that goes lacking.	1.45
27	To develop the individual's ability to be an independent work and activities.	1.37
37	Try to acknowledge with the hobbies of each other.	1.28
29	Keep a couple of frames to get attention so that the other party alone.	1.19
2	To accept old age and act appropriate for the age	-1.20
19	Do act with rational judgment without follow someone else's opinion	-1.23
16	Take care of themselves and manage to live health because there is no line capacity and willingness.	-1.25
32	Take over to his wife to the economic decisions and the real power	-1.48
3	Have a realistic attitude and acts like one.	-1.59
1	In the rest of your life it does not make a new business or job.	-1.88

39명중 18명의 중년여성이 포함되었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5명이 교수, 공무원 및 기타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력은 80% 이상이 상위권으로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6명, 천주교 5명, 불교 2명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3명으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의 결과가 파악되었다.

본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제1유형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관리를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한다’(#23, $z=1.95$)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행동을 구속하지 않는다’(#12, $z=1.70$), ‘자기스스로 독립된 취미나 활동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14, $z=1.26$)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이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중년여성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며, 독립된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본 유형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경제적 결정권과 실권을 아내에게 맡긴다’(#32, $z=-1.85$)와 ‘가부장적 사고 및 고정된 관습과 사고를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33, $z=-1.26$)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행동을 구속하지 않는다.’(#12)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주장만 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특히 나이가 들어 갈수록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배려 및 지지의 태도이며 이러한 결과는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부간의 타협적인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서로의 생각이나 능력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우자의 의도대로 행동을 구속하게 된다면 중년 이후의 생활

은 매우 불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본 유형에서 ‘자기 스스로 독립된 취미나 활동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14)의 항목을 선택한 설명으로는 부부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년의 시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인정해주고,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선택한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25)에 대한 설명은 폐경기 이후 성욕구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감퇴되므로 서로들에게 있어 성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신적인 지지자 및 친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 각자의 취미 활동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제 3유형 내면적 가치 존중형

제 3유형은 ‘내면적 가치 존중형’으로 중년의 삶에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없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존중하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배우자를 기대하고 있다. 내면적 가치 존중형은 모두 총 39명중 8명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주부가 3명, 간호사 1명, 학원 강사 및 전도사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5명, 불교 1명,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자 3명, 경제적 상태는 8명 중에서 5명이 중 이하이었다.

제 3유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항목으로는 ‘여유 있는 생각과 인자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있게 행동한다.’(#35, $z=2.00$)와 ‘상대방 사고나 행동에 대해 불평, 잔소리 및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31, $z=1.48$)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외롭지 않도록 지지한다.’(#5, $z=1.33$)는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

Table 3. Descending array of Z-Scores for Factor 2

Item No.	Description	Z-score
23	To maintain health and self-administration without dependence.	1.95
12	Have an open mind and be respectful to others.	1.70
35	Cherish other people by understanding thoughts and respectful language use.	1.70
14	Find his way to live by himself and have a separate life.	1.26
27	To develop the individual's ability to be an independent worker and activities.	1.14
7	Decide by himself and not to be unpredictable.	-1.05
9	Make more sociable and active person with many friends.	-1.16
29	Keep a couple of frames to get attention so that the other party alone.	-1.21
33	Bring changes in his fixed action and thinking to pace with me.	-1.26
32	Take over to his wife to the economic decisions and the real power	-1.85

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동의 하지 않는 항목은 ‘자기 스스로 독립된 취미나 활동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14, $z=-1.63$), ‘부부간의 성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며 해결한다’(# 26, $z=-1.48$) 및 ‘독립된 일과 활동을 찾아 개인의 능력을 계발 한다’(# 27, $z=-1.44$)와 같이 배우자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거나 삶을 유지하는 것, 특히 타인과의 사교적이고 지나친 태도에 대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내면적 가치 존중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항목으로는 ‘항상 여유 있는 생각과 인자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있게 행동한다’(# 35)이었다. 본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중년여성들이 배우자 중심이 되어 살아오면서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대하는 부분에서 존중을 하거나 배려하는 태도, 인자한 마음이 부족하고 특히 대화 시 다정하게 느껴지는 언어적 표현을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러한 부분이 삶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 행동에 대해 불평, 잔소리 및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 31)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외롭지 않도록 지지한다’(# 5)를 선택한 이유로는 배우자에게 아내는 우선이어야 하고,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으로 지금까지 내편은 아니었을지라도 특히 중년의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자신만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년의 시기는 물론 함께 노년기를 맞아야 할 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받아야 할 개체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어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을 기대한

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가장 비동의하는 항목으로는 ‘자기 스스로 독립된 취미나 활동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14)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부부는 늙어갈수록 서로 배려하고 돕고 살아가야 하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감소하고, 자식의 독립으로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본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4) 제 4유형 현실적 수용형

제 4유형은 ‘현실적 수용형’으로 지금까지 배우자의 행동과 삶의 태도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남은 삶에 있어서 배우자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하고 있다. 제 4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39명 중 모두 5명이 해당되었다. 본 유형의 인구학적 특성은 주부가 2명, 영업실장 1명, 교수 1명, 약사 1명으로 소수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포성향을 보이고 있다. 종교부분에서는 기독교가 3명, 천주교 1명,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1명이며 자녀수는 대부분이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가장 동의 하고 있는 항목은 ‘돌보아줄 여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관리하도록 한다’(# 16, $z=1.39$)이었다. 다음 순위의 항목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살아간다’(# 15, $z=1.38$)는 진술문이었다.

가장 동의 하지 않는 항목은 경제적인 결정권과 실권을 상대방에게 인계한다’(# 32, $z=-2.76$)와 ‘불건적으로 고착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34, $z=-1.55$)와 같이 배우자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s for Factor 3

Item No.	Description	Z-score
35	Cherish other people by understanding thoughts and respective language use.	2.00
23	To maintain health and self-administration without dependence.	1.81
31	Rather than complaining and lecturing, admit me as I am.	1.48
12	Have an open mind and be respectful to others.	1.44
5	Always give my side, do not be alone.	1.33
33	Bring changes in his fixed action and thinking to pace with me.	1.27
9	Make more sociable and active person with many friends.	-1.06
1	In the rest of your life it does not make a new business or job.	-1.08
15	Admit current situation as it is and live within the range.	-1.17
27	To develop the individual's ability to be an independent work and activities.	-1.44
26	Communicate with me when aging occurs any problem in sexual life.	-1.48
14	Find his way to live by himself and have a separate life.	-1.63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for Factor 4

Item No.	Description	Z-score
16	To stay healthy since I am not confident with looking after him well.	1.39
15	Admit current situation as it is and live within the range.	1.38
35	Cherish other people by understanding thoughts and respective language use.	1.30
30	Due to physical aging,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hanges and help hard work on behalf	1.23
2	of the difficulty. To accept old age and act appropriate for the age	1.10
8	Have right hobbies to keep his life interesting.	-1.01
9	Make more sociable and active person with many friends.	-1.45
34	Be free from conservative way of thinking and behaving.	-1.55
27	To develop the individual's ability to be an independent work and activities.	-2.06
32	Take over to his wife to the economic decisions and the real power	-2.76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현실적 수용형’에서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는 중년이 되면 누구를 돌보아줄 정신적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늙어감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적응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 일은 위기의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므로 나이에 걸맞게 조용히 현실에 순응하는 행동을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결정권과 실권은 아내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한다’(# 32)와 ‘독립된 일과 활동을 찾아 개인의 능력을 계발 한다’(# 27) 그리고 ‘봉건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34)에 대해 강한 부정을 나타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적응되어 온 행동으로부터 중년이 되어 급격하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떠한 변화 없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논 의

중년여성의 특징적인 변화는 폐경기 및 갱년기를 통한 신체적, 심리적 노화와 가족과 함께 하는 상실감이며, 자신감과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6].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결손이 되어 있다면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지지는 중년여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 및 위기의 상황에서도 잠재적인 개인적 역량 개발과 남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위해 재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고 이로 인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더욱이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중년여성의 긴 삶과 연계 되는 노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중년여성의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밀접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중년여성이 행복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태도 및 행동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들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유형은 네 가지 유형으로 ‘협조적 자기 관리형’, ‘독자적 생활 존중형’, ‘내면적 가치 인정형’, ‘현실적 수용형’으로 확인되었다. 중년여성이 기대하는 ‘협조적 자기 관리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배우자가 자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 삶을 계발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년여성의 삶은 지금까지 배우자의 건강관리와 내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가족을 위해 희생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왔지만 남은 시간동안 만큼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유지,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거나 미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삶은 중년여성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자기 일을 꾸준히 추구하거나 여성 배우자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수준이 높을 때 중년여성의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17]. 더욱이 배우자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고 협조적 지지정도가 클수록 중년여성은 생활에서 만족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를 또한 지지하고 있다[18]. 본 유형에서 중년여성이 배우자가 자기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기대에 대한 구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여성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배우자와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해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역할을 유지해 오다, 심리적 갈등과 신체적 문제가 도래 될 수 있는 중년의 시기에 연속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는 매우 스트레스와 함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이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자기 관리능력 및 협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중년여성 자신의 행복한 삶의 질과 행복한 가족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독자적 생활 존중형’에 해당하는 중년여성의 특성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배우자는 여성들의 생각과 생활 형태를 그대로 배려하고 인정해 주며, 취미나 개인의 활동에서도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해서 지지해 주기를 원한다. 또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남은 인생을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유형에 포함되는 여성 대부분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역할이 분명한 대상으로 이러한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배우자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에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배우자가 무조건 내편이 되어주고 지지하는 것 보다는 각자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주며 구속하려 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나약하고 의지하는 여성으로써의 도움과 관심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각자의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결국은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년여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부부관계에서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이 서로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방법이며,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부간의 신뢰와 만족도가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유지와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로의 다른 성격과 개성,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갈등과 위기가 표출되며, 부부는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5]. 본 유형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배우자가 혼자만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을 제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년기의 삶에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건강한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 하는 계기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3유형은 ‘내면적 가치 인정형’으로 관대한 배우자의 태도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방에게 인자하게 대해주는 언어와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는 것을 원하며, 상대방이 예의 있게 행동해 주고 아내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내편이 되어 이해해주며 외롭지 않게 함께 있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유형의 여성들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중년여성은 배우자가 대부분 자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본인들의 생각과 상황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해와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태도는 중년이후 여성들에게는 부정적 요인이며, 추후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9]. 본 유형의 여성들은 배우자에게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방을 귀하게 존중해 주거나, 혹시 자기와 다른 내면적인 사고와 가치들을 인정해주고 의사소통 시에도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과 함께 인자하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들이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기대는 의사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전달하고 받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 개인의 대화 체계를 상호 모색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5]. 특히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 줄 수 있는 대상은 단지 배우자뿐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편이 되어 주지 않았을 지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남편이 되어주어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일 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화병과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3], 여성의 갱년기 증상으로 소외감이나 우울증을 느낄 때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내면적 가치 존중과 따뜻한 지지 등을 기대하는 것은, 중년여성들은 노화로 신체적 기능저하를 경험하면서, 정서적 허탈감과 좌절감 및 자녀의 독립으로 가정 내 역할변화 등 과도기를 겪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9], 이는 배우자의 관대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힘이며 또한 이러한 역량은 누구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수용형’으로 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중년여성들은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로 더 이상 배우자를 위해 노력하고 돌보아줄 여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자지 스스로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정관념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형태로 변화 있는 행동조차도 원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새로운 시도는 스트레스의 요인이며 중년기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와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습관적인 태도와 생각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된 고정관념, 생활태도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중년여성의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부부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변화 되어야 하며, 평등한 관계로 가부장적인 권력주도형은 참 동반자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5], 부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역할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태도와 행동을 수용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관적 생각으로 배우자가 현재생활에 그대로 적응하기를 바라고 본인자신도 새로운 역할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선행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역할 변화와 부부의 행동변

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유형을 파악하고자 중년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주관적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Q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이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포함하는 배우자의 행동요인에 따라 중년여성의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4개 유형에서 포함되는 각 속성에 대해 중년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도 설명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들이 그들의 배우자에게 인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행동변화를 위해 어떠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화가 도래하게 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년의 시기에 배우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 행동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커다란 의의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년여성으로 본 연구결과가 전체 중년여성이 기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중년여성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유형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도 4개의 유형에 대한 각 요인이 전체 변량의 37.96%만을 설명하고 있어 중간 50% 이하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P표본 선정시 다양성의 부재와 Q 모집단을 충분히 객관화 시키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환경구조에서도 지속적인 중년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배우자의 행동 및 태도변화를 위해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지역사회와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census[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cited 2014 December 11].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911&clas_div=C&idx_sys_cd=540&idx_

- clas_cd=1
2. Kim CK. A qualitative study on depression experiences of middle aged depress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4):1783-1806.
 3. Koo BJ. A study of climacteric symptoms, hwabyung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2013;3(2):5-23.
 4. Koh HJ, Kwon YS, Kim MA, Park KM, Park JS, Park CJ, et al. Survey for health problems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999;3(2):257-266.
 5. Kim MK. The crisis of midlife couples and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Gospel and Counsel*. 2010;15: 137-159.
 6. Ko JW. Relationship of leisure type and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by middle-aged women[*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3.
 7. Jang HS. Study of women's psychology. 2nd ed. Seoul: Pak-youngsa; 2012.
 8. Doo HJ. Subjectivity on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who attend self-help group to overcome midlife crisis: Q methodology approach.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3;19(2):78-87.
 9. Jeong CJ. The effect of a caregiver social support group on burden and quality of life on family primary caregivers with brain and spinal cord injuries[*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92.
 10. Oh YH, Kim YK. Living to one hundred: policy implications of what Koreans think about living longer. *Journal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80:39-52.
 11. Kwon OG, Hur JS.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cou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2010;47:7-29.
 12. Choi MI, Choi KR. The effect of sexual adjust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7;12(3):59-83.
 13. Cho HS. The effect of conjugal relationship in middle and old age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oderate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2013;3(2):1-19.
 14. Hong JY, Yoon M.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happiness and depression of women in midlif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13;18(1):219-242.
 15. Kim HG, Oh SJ. An attitudinal factors of malling at the multiplex shopping mall.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011;12: 221-237.
 16. Kim HG. P sampling and q sorting.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007;15:5-19.
 17. Kim ML, Chung JW. Verifying health behavior model of middle aged women participating regular exercise: emphasis on spousal suppor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3; 54(1):877-886.
 18. Park MS.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somatic symptoms, family 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11(1):33-42.
 19. Kim SJ, Kim S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76-187.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pursuit of happiness or factor of middle-aged women was presented.

■ What this paper adds?

There is a subjective structure within the types of expectations of middle-aged women for a life of happiness to the spous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Repetitive study is required with nationwide sam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ype of expectations in general.